

# 수영 금지 표지판 무시 '위험한 물놀이'

잇단 익사사고 광양 계곡 가보니

하루전 사망사고 난 주변서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도  
3년간 5명 사망...올해만 2명 숨져  
4대 계곡 위험 구간만 40여곳  
안전요원 14명으로 감당 어려워



6일 광양시 봉강면 성불계곡에서 '수영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이 장소 바로 옆에서 전날 피서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6일 오전 광양시 봉강면 성불계곡에서 유치원·초등학교생 20여명이 가족과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계곡 옆에는 '수영금지'라는 위험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물놀이를 통제하는 이는 없었다. 심지어 계곡 바로 앞 무허가 식당에선 "물놀이를 해도 된다"며 음식을 팔고 있었다. 전날 이 식당 앞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40대가 익사사고를 당했지만, 식당은 여전히 정상영업 중이었다.

특히 사고 지점에는 출입금지지를 알리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음에도 피서객들은 그 주변 계곡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사망사고까지 났지만 주변엔 그 흔한 구명장비조차 비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없었다.

같은 날 오후 광양시 진상면 천수암 인근 어치계곡에서도 10여명의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아이들의 보호자로 보이는 어른들은 계곡 옆에 돛자리를 펴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계곡에 설치된 '물놀이 금지구역' 표지판을 뒷배경으로 다이빙을 하는 등 위험한 동작을 반복했다. 이 곳은 최근 물놀이를 하던 고등학생이 빠져 숨진 위험지역으로, 성불계곡과 마찬가지로 안전요원은 없었다.

물놀이 금지 표지판에 적힌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였다.

옛부터 경치 좋고, 물 맑고 시원하기로 유명한 광양 대표 4대 계곡이 '사람 잡는 계곡'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을 피해 광양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남에서 물놀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광양에서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광양시의 안전한 물놀이 사고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광양시는 지난 5월부터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2018 여름철 물놀이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는 등 호수감을 떨었지만, 올해에만 광양 4대 계곡에서 물놀이 도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극적으로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되풀이 되는 광양 4대 계곡의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선 여름 시즌만이라도 주요 계곡에 안전요원과 안전장비를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광양의 대표적

인 계곡은 백운산 인근에 자리잡은 동곡·성불·어치·금천 등 4곳으로 총길이만 22km에 달한다. 광양 4대 계곡으로 불리는 이곳은 시원한 바람을 동반한 아름다운 풍광 등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인기가 높은 전국 대표 피서지다.

광양시는 올해 4대 계곡 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 14명을 배치하고, 위험 표지판 62개와 구조함 23개, 인명구조장비(구명환·로프)를 걸수 있는 이동식 거치대 16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4대 계곡내에는 수심 2m가 넘는 위험구간만 40여곳으로, 현재 배치된 안전요원과 구조장비만으로 물놀이 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배치된 구조장비 중 상당수는 이미 분실·훼손됐거나, 나무와 풀 등에 가려져 비치 여부조차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 계현

실이다. 이 때문에 광양 4대 계곡에선 크고 작은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봉강면 성불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모(48)씨가 수심 2.5m 계곡에 빠져 숨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광양시 진상면 어치계곡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익사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광양 동곡계곡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이 물에 빠졌다가 인근에서 휴가를 즐기던 119구조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는 등 크고 작은 계곡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계곡에서 수영금지 사함을 여겨 적발되거나 과태료를 낸 경우는 없다"면서 "올해는 수난사고를 막기위해 안전요원을 지난해 4명에서 14명으로 늘리는 등 노력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광양=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 첫 '폭염 사망'...별교 70대도 숨져

광주와 전남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올 들어 광주에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주택 2층 거실에서 A(여·81)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던 중 6일 오후 1시 40분께 숨졌다. A씨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에 의지해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A씨는 매일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집안 일을 도와주는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요양보호사는 경찰에서 "지난 2일에는 A씨의 상태가 괜찮았는데 하루 뒤가 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선풍기에 의지하며 열대야를 견디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밤 9시께에는 보성군 별교읍

영동리 야산에서 B(74)씨가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별교의 한 요양원에 머무르는 B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요양원 인근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별초하러 나간다고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6시께까지 B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마을 주민들과 함께 B씨를 찾아 나섰으며, 부모님 산소 인근 나무 밑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B씨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지만 가벼운 거동은 가능해 평소에도 부모님 산소를 자주 들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별초를 하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다 더위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7일 현재 온열질환에 의한 사상자는 광주 89명(사망 1명), 전남 233명(사망 3명·6일 기준)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별교=김윤성 기자 kim0686@

## 50대女 선별기계 휩쓸려 숨져

6일 낮 12시 55분께 광주시 북구 대촌동의 한 재활용품 선별업체에서 중국인 직원 A(여·59)씨가 선별기계에 몸이 휩쓸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된 회전형 재활용품 분류장치 안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갔다 가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는 바람에 2.4m 아래로 추락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사망했다.

경찰조사결과 동료 직원 B(여·56)씨가 점심시간이 끝나자, 오후 작업을 하기 위해 회전형 분류장치를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기계 안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승용차 갯벌 추락 1명 사망

바닷가를 달리던 승용차가 길을 벗어나 갯벌 바닥으로 떨어져 고령의 탑승자가 숨지고 운전자는 다쳤다.

7일 낮 12시 57분께 해남군 황산면 한 어촌 선착장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방파제 아래 갯벌로 추락해 뒤집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운전자 나모(69)씨와 동승자 지모(70)씨를 차 밖으로 꺼내 병원으로 옮겼다. 의식과 호흡을 잃은 채 구조된 지씨는 사고 후 2시간여만에 사망판정을 받았고, 타박상 등을 입은 운전자 나씨는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마을에 사는 이웃 사이로 알려졌다.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주민은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냈고 활강하듯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 가수 이미지 40억대 소득 신고 누락..."세금 20억 내라"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씨가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억원을 납부해야할 처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미자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고 판결했는데,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44억5000여만원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하지 않고 남편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20여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것.

○이런 판결로 이씨는 반포세무서에서 경정·고지한 19억 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됐는데, 이씨측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연합뉴스

## 전남 일부 해수욕장 안전시설 미흡

한국소비자원 실태 조사  
안전관리 강화 요청키로

합평 안악해수욕장, 영광 조약돌해수욕장 등 전남 일부 해수욕장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일 전국 해수욕

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에서는 합평 안악·물머리, 완도가사동백숲, 영광 조약돌해수욕장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안악해수욕장과 조약돌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을 비롯한 동력구조장비(구명보트 등),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 안전점검 4개 조사항목 모두 제대로 갖춰

지지 않았다.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다.

물머리해수욕장은 감시탑이, 가사동백숲 해수욕장은 감시탑과 동력구조장비가 없었다. 두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정 해수욕장이다.

또 법적 지정해수욕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가사동백숲 해수욕장 화장실은 장애인 등 취약자 전용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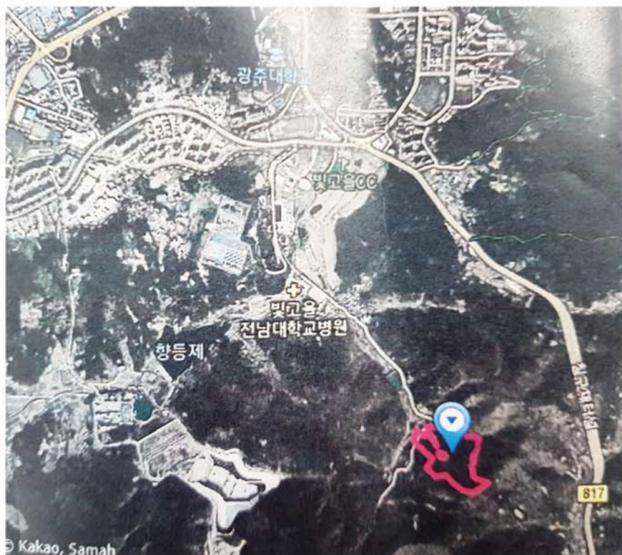
물론 비누와 비상벨조차 없었다. 안악해수욕장은 비누·휴지가 비치되지 않았고, 조약돌 해수욕장은 화장실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내 지정 해수욕장은 55개이며, 비지정해수욕장은 28개(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 통계)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